

# 계율 근본정신 살리며 시대 따라잡을 '코드' 는?

## 한국불교학회 '계율의 현대적 조명' 학술발표

수행의 출발점이자 중추적인 '계율(戒律)'. 계율의 근본정신을 살리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것을 어떻게 변용할 것인가. 한국불교학회(회장 이명래)는 '계율의 현대적 조명'이란 주제로 4월 14일 동국대학교 문화관에서 학술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팔리문헌연구소 장 마성 스님의 '남·북방 계율의 상호보완성 탐색'과 동국대 강동근 교수의 '정토교 계율의 현대적 조명' 금강대 권탄준 교수의 '화엄경 계율의 현대적 조명' 동국대 교수 해원 스님의 '계율과 청규의 관계에서 본 현대 한국의 선원청규' 등 계율에 대해 포괄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 논문이 발표됐다. 이목을 집중시킨 2편의 논문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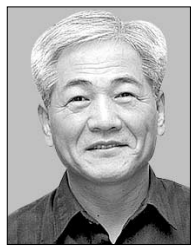
### '화엄경' 계율의 현대적 조명

## 이기적 현대인에 이타 자비행 강조

금강대 권탄준 교수

<화엄경>에서는 십선계에 중점을 두고 계행을 강조하고 있다. '심무진장'의 계장, '십지품'이 구지의 삼취정제 그리고 '이세간품'의 십종정제 등에서 중점적으로 계를 살하고 있다. 십선계는 이미 <아합경>에서 살펴져 상당히 중요시된 교설이었다. 또한 십선계는 전체적으로 출가자에게도 통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재가자의 계라고 할 수 있다.

화엄의 계가 이렇게 십선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이타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특징이다. 화엄경에서 살펴지고 있는 모든 계에는 보살이 중생을 요익케 하고 안락케 하는 것을 수행의 근본으로 하는 정신이 확연하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이승의 법을 버려야 한다'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성문과



연각이 타인을 배려함이 없이 자신의 성취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화엄경에서 설하고 있는 계행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중생을 위한 이타 자비행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것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치달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참다운 자아실현과 진정한 인간의 삶을 깨우쳐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십행품'에서 자타를 이롭게 하는 요익행을 살하면서 스스로 깨끗한 계를 수호해서 가지며 일체의 감각대상에 집착하지 말 것을 설하고 있는 것도 오욕에 탐착해서 거기에 빠져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주목해야 할 법문이라 할 수 있다.

### 계율과 청규의 관계에서 본 현대 한국의 '선원청규'

## 우리시대 수행에 맞는 '新청규' 필요

동국대 교수 해원 스님

근·현대 불교사적 관점에서 선원청규를 살펴보면, 고청규에서 선원의 조직과 운영을 위한 '내규'로서 점차 변용됨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선원청규는 각 종단이 청규라고 제시하면서도 스스로 '내규'라고 밝히듯 선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주제축의 내규로 불이 타당할 것이며 조직의 효율에 벗어나면 바로 퇴장한다는 '승체(僧制)'와 다름없는 규정을 만들었다. 고청규에는 심원(心源)을 깨치도록 방장(住持, 선지식)과 소인자, 대중이 서로 봉사해야 하며 퇴방에 대한 규정으로서 죄의 경중을 두어 벌해야 하며, 범죄자가 다시 수행에 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은 선원의 방부자가 궁극적으로 불도완성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참회로서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로 규구(規矩)가 구성되어 있다. 현재 조계종단이 이 크게 관심을 두는 청정승가의 '수행풍토'는 엄정한 수행체제에서 이루어진다. 더구나 간화선을 선법으로 하는 교단으로는, 선원의 청규는 더욱 중요하다. 조계종단의 각 종단에서 제정한 청규의 내용이 선원운영을 위한 효율적 관리에 지나지 않는다면 조계의 '돈오' 사상을 선지(禪旨)로 삼은 간화선 수행은 더욱 미흡되어 대개 목조선을 '흑산하타(黑山下打)'라고 한 선수(禪修)를 도리어 범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서로의 불도완성'을 위해 제정한 '고청규'를 근거로 다시 우리 시대의 수행에 걸 맞는 '신청규'가 나와야 할 것이다.

노병철 기자 sasamin@buddhapia.com

##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47>

###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카메라가 보급되면서 부쩍 카메라가 보편화되고 있다. 디지털카메라의 강점은 아마도 필름 비용이나 인화·현상 비용 부담이 적다는 점일 것이다. 과학기술을 아는 사람들은 이를 두고 '전자와 홀이 공짜니까'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한다.

찍고자 하는 물체의 빛이 반도체 칩에서 전자와 홀로 변환이 되고, 이 전자와 홀의 수를 반도체 칩의 회로가 이용하여 디지털 신호로 바꾼 후, 바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하는 원리다.

물체의 색깔과 빛의 세기가 화상 물질을 감광 물질을 변화시킨 후, 이 변화를 다시 사진용 종이에 전사시키는 예전의 필름 방식과는 다르게, 요즈음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빛이 반도체칩

방울이 이웃하는 물이 채워짐으로써 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주위의 속박전자들이 빈자리를 채워 나감으로써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가 디지털 카메라뿐만이 아니고 반도체 회로가 동작하는 기본 원리가 된다.

인터넷에서 빛 신호로 전송하는 이 유는 빛에 많은 신호를 실어 유리섬유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외부세계를 인식하는 시각 또한 신호를 전하는 방식도 비슷하다. 외부의 빛이 눈의 안쪽에 존재하는 망막의 시신경을 자극하면, 이 자극에 의해서 신경 세포내의 물질이 전하를 다시 사진용 종이에 전사시키는 시신경을 타고 뇌까지 전파되는 형식이다. 반도체와의 차이점은 전자와 홀

## 상호관계에 의해 신호·에너지 주고 받으며 변화하는 모습이야말로 존재의 참모습

에서 전자와 홀로 변환되는 것이다. 전자와 홀이 반도체내에서 생성되는 것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전자와 홀이 공짜라고 말하는 것이다.

반도체 내에서 빛이 전자와 홀로 변환되는 원리는 참으로 요묘하다. 빛 에너지가 반도체 칩의 소자화소라고 한 곳에 비쳐지면, 반도체 원자핵에 속박되어 있던 전자가 떨어져 나간 후 자유전자가 된다. 이렇게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빈자리를 만들게 되는데, 만

대신 전자와 +이온이 분리되어 전파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전자와 홀, 그리고 빛 사이에서 서로 에너지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원불변이라고 믿는 안·이·비·설·신·의와 같은 느낌들이 사실은 빛이라는 파동, 그리고 전자와 홀의 상호 변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결코 어떤 인식도 영원히 지속되는 실체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아니 상호관계에 의해서 신호와 에너지를 주고받는, 변화하는 모습이야말로 존재의 참모습일지도 모른다.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메모리 스틱에 저장하고 전송하면

서도 우리는 2600년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무상함, 그리고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참자비를 얻을 이루고 있던 전자가 떨어져 나간 자리인 홀은 마치 목욕탕 물에서 생긴

Forever... 무상함도...  
그림: 문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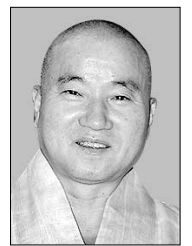
## 학술대회 인터넷 실황중계

보조사상연구 4월 22일 불교의 생태관 주제 윌레발표회

학술세미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시청한다. 가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 세미나장을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부다피아(www.buddhapia.com)가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사진)의 4월 윌레 학술대회를 인터넷으로 실황 생방송한다.

4월 22일 동국대 다량관에서 열리는 이번 윌레발표회는 불교세계관과 생태학적 위치에 대해 선사상과 각 종단의 자연관을 중심으로 불교 법계관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동국대 선학과 교수 법산 스님의 '선사상의 생태학적 접근'과 위덕대 장의 교수의 '밀교의 생태관' 등을 포함해 3편의 논문이 소개된다.



보조사상연구원장 법산 스님은 "바쁜 현대인들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가며 학술대회를 찾아가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며 "이번을 계기로 보조사상연구원과 부다피아가 앞으로 열릴 윌레발표회를 매년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 오구라컬렉션 한국문화재 도록 발간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오구라컬렉션 한국 문화재 도록이 편찬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진)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차례 걸쳐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오구라컬렉션 한국문화재를 조사하고 최근 그 결과를 정리해 도록으로 발간했다.

오구라컬렉션은 일제강점기 남승합동전기회사의 사장을 역임한 오구라 타케노스케(1896-1964)가 1922년부터 52년 까지 국내에서 수집한 유물 1,100점의 문화재를 지칭하는 말로 그동안 '재단법인 오구라컬렉션 보존회'가 관리해 오다 오구라의 아들 야스유키에 의해 1980년대 초반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됐다. 통일신라시대의 금동비로자나불입상(사진), 고려 목조 10년(1007년)에 제작된 일체여래비밀전신사리보현인다리니경 등 다수 성보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는 오구라컬렉션은 회화, 조각, 공예, 전적, 복식류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문화재가 망라돼 있다.

김두식 기자

<h3>( 불자정보 )</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격: 5×5cm=50,000원</li> <li>계좌/농협 053-01-22747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 민 222-25-0005-381(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li> <li>전화: 02) 2004-8213~6 / 02) 732-1522 (直)</li> <li>전송: 02) 737-0696</li> <li>e-mail: jabi1522@empal.com</li> </ul>	<h3>포교당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부산 해운대구</li> <li>건물: 2층주택 50평</li> <li>방3, 주방, 욕실</li> <li>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20만원</li> <li>시설비: 5000만원</li> <li>가격절충가능</li> <li>051)783-9265</li> </ul>	<h3>포교당(급)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문화재의 3분 홍제역2분거리 대로변인, 3층건물 중 3층</li> <li>약 15평 옥탑방 사용가능</li> <li>삼존불, 방화2점 및 산사행화 1점</li> <li>집기일체</li> <li>몸만오시면 법회가능</li> <li>가액: 보증금 700만원 월 33만원 시설비 800만원</li> <li>011-274-3853</li> </ul>	<h3>사찰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경북 포항</li> <li>법당 15평</li> <li>요사채 75평</li> <li>부지 1000평</li> <li>심야보일러</li> <li>가액: 3억5천만원</li> <li>016-536-8774</li> </ul>	<h3>포교원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부산 온천동</li> <li>대지: 400여평</li> <li>건물2동(100여평)</li> <li>수천세대 아파트단지 백양산 자락</li> <li>포교원으로 매우 적합</li> <li>가액: 12억</li> <li>011-587-2275</li> </ul>	<h3>사찰 및 실버타운부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부산근교 바닷가</li> <li>부지: 2만4천평(100% 평지) 정남향, 2차선도로 접</li> <li>평당 25만원</li> <li>사찰 및 사찰부지 다수 확보</li> <li>비밀보장, 신속처리</li> <li>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li> <li>051)863-6661/011-560-8522</li> </ul>	
<h3>사찰(급)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충주시 가끔면 팔평리(정토사)</li> <li>대지: 입야 5,700평</li> <li>건물(사설): 요사채 사용하기 편리한 시설</li> <li>법당: 50평 산신각 10평</li> <li>지장보살 조성</li> <li>특징: 충주 중앙탑 건너편</li> <li>가액: 13억5천만원</li> <li>053)763-9881</li> <li>011-9375-0108</li> <li>011-866-7900</li> </ul>	<h3>포교당 구합니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경북 경주 지역</li> <li>평수: 30평 이상</li> <li>010-7272-8041</li> </ul>	<h3>토굴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용인시 모현면 외국어대학 근처, 교통편리</li> <li>대지 140평, 텃밭 150평</li> <li>건물: 조립식 30평 (방3, 거실, 욕실, 주방)</li> <li>자연아스터 있고 동네에서 700m 떨어져 있음</li> <li>가액: 4천5백만원</li> <li>010-6330-3340</li> </ul>	<h3>사찰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양산 IC부근</li> <li>대지 120평</li> <li>법당: 20평</li> <li>요사: 30평</li> <li>앞 계곡, 교통중음</li> <li>가액: 2억1천만원</li> <li>011-596-3563</li> </ul>	<h3>포교당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김해시 어방동 아파트 밀집, 상가사상, 대형마트 동김해 최요지</li> <li>평수: 46평, 5층건물중 4층</li> <li>방2개, 법당, 공양간, 시설1년</li> <li>방안방 시설완비, 주차시설완비</li> <li>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능)</li> <li>회면, 사주, 요가, 풍수, 수맥, 대체의학 전수가능. 무료 전수</li> <li>011-834-8545</li> <li>055)337-8600</li> </ul>	<h3>포교당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경남 김해 대동</li> <li>대동IC 5분거리, 부산시내10분거리 김해10분거리</li> <li>대지: 170평</li> <li>법당, 대웅전</li> <li>요사채2동</li> <li>가액: 1억 5천만원</li> <li>011-557-9293</li> <li>055)337-2233</li> </ul>	<h3>포교당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 시장통 연세대, 명지대 근처</li> <li>평수: 30평, 2층 전체 사용, 삼존불 등등</li> <li>몸만와도 즉시 법회 가능</li> <li>시설완비, 집기일체</li> <li>보증금 500만원/월 35만원</li> <li>시설비: 답사 후 결정</li> <li>* 개인사정으로 인수자를 찾습니다</li> <li>010-4766-1158</li> <li>02)376-1158</li> </ul>
<h3>포교원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부산시 동래 지하철역 바로 옆 부산 도심지 지하철역 최고 조건</li> <li>평수: 20평, 삼존부처님, 신중탱화, 유물탱화, 영가단, 각단탱화 등</li> <li>방2, 주방, 욕실, 시설완비</li> <li>신선이 문득한 비구, 비구니스님에게 무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li> <li>가액: 보증금 전세 2천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일체 없음</li> <li>011-488-0316</li> </ul>	<h3>사찰(급)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다향 예솔원)</li> <li>총평수: 2500평(대지 450평)</li> <li>법당: 황토방(2칸)</li> <li>건물: 총 150평</li> <li>특징: 황토집, 사찰 윗편 석류굴 바다와 시내 10분거리</li> <li>가액: 3억(전세가능) 답사후가액절충가능</li> <li>054)783-8265</li> <li>011-9572-2444</li> </ul>	<h3>포교당(급)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경남 마산에서 위치 최고</li> <li>총평수: 47평</li> <li>5층 중 4층</li> <li>가액: 보증금 2천 월 60만원</li> <li>시설비 2천만원</li> <li>011-9235-9318</li> </ul>	<h3>암자토굴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충북 보은읍 지산리</li> <li>대지: 192평</li> <li>건평: 27평(임법당)</li> <li>가액: 7천만원</li> <li>043)544-3398</li> <li>011-9028-5615</li> </ul>	<h3>포교당(급)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대부도 내</li> <li>약 50평, 방5개, 법당약30평, 삼존불</li> <li>가액: 500만원 60만원</li> <li>시설비: 1,500만원</li> <li>010-4215-9119</li> </ul>	<h3>포교당(급)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경기도 부천시 역부근 2층</li> <li>약 80평(주차시설 완비)</li> <li>법당, 삼존불(중), 후불, 신중탱화</li> <li>방사 4개, 공양간</li> <li>가액: 일의사천만원</li> <li>보증금 7천만원(월세, 관리비 없음)</li> <li>시설비 7천만원(절충가능)</li> <li>서울, 구리, 성남, 인천, 원주 일대 포교당과 교환가능</li> <li>011-9788-3306</li> <li>011-9987-2215</li> </ul>	<h3>사찰안내 (토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충남 부여군 초촌면 신암리 33 미타사</li> <li>대지: 270평</li> <li>등기건평: 30평(기외솔라브)</li> <li>(가건물 2동, 본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텃밭, 경관수려, 지하수 2)</li> <li>가액: 1억3천500만원</li> <li>041)834-0206</li> <li>011-9408-0055</li> <li>011-9344-9718</li> </ul>